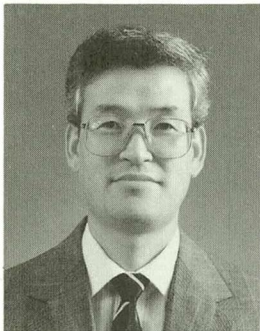


성장친화적 보건복지의 구현



曹在國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를 비용과 소비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와 관련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분야에서 고용창출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대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원리를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비용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1. 복지서비스 및 보건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증대

보건복지부문을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복지서

비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전체산업의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생산적 복지의 내용이 된다.

복지서비스 및 보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각각 2배 및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보건 산업으로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체산업 평균의 1/3수준이나 보건산업은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1. 복지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1995년)

	사회복지	보건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	0.001326	0.012060 (0.007424) ¹⁾	0.004157
고용유발효과	0.000045	0.000525	0.000020

주: 1) ()안은 비영리 의료부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정

2. 보건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

한편 보건산업은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의약품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산출

표 2. 의약품산업의 부가가치율 및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1995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가가치율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의약품산업	42.7	81,136
정보통신산업	45.2	-
전체 제조업평균	31.0	54,016

주: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산출액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8.

보건복지부문을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전체산업의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생산적 복지의 내용이 된다.

액)은 42.7%로서 전체 제조업 평균 31.0%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은 고성장형 산업으로서 세계시장 규모는 1996년 408조원에서 2010년 927조원으로 연평균 약 6%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시장도 1996년 10조원에서 2010년 39조원으로 연평균 약 10%로 고성장할 전망이다.

표 3. 보건산업¹⁾의 시장규모 및 성장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1996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세계시장	407.6	518.3	691.3	927.1	6.1
국내시장	10.4	16.1	27.1	39.1	9.9

주: 1) 식음료 부문의 세계시장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산업만 포함함. 자료: 권순원, 『한국보건산업의 진흥전략』, 1999.

따라서 보건산업을 2010년까지 국제경쟁력 세계 7위권 국가 진입을 목표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보건산업분야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게 되고, 보건산업이 우수과학두뇌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의과학은 암, 치매 등 난치병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획기적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의약품은 2003년까지 3~5개의 신약을 개발하고(현재 20개 품목 임상시험중), 2010년까지는 항암제 등 10개 이상의 신약을 개발하여 신약개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하도록 한다. 의료생체공학은 2010년까지 20~30개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세계의료기기 시장에서 5위권에 진입하도록 한다. 현재 반도체분야 기반기술에 힘입어 전자의료기기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다.

업종별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핵심역량의 개발을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업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품 전면 위탁생산(Toll-Manufacturing)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정책의 기본 틀을 전환하여 2010 건강복지과학기술개발사업(Health-Fare 2010 Program)을 추진하고, 건강복지과학기술 진흥의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과 관련한 복지과학기술

(Welfare Technology)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3.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정부 협조체계 구축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의과학, 의약품, 의료생체공학, 보건의료정보, 뇌의약학, 식품과학, 생명공학 등 8개 전략분야에 연구개발비를 2010년까지 1조 5천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까지 총복 오송에 276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하여, 보건원·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산업진흥원 및 민간연구소·산업체 등 200개 이상의 기관을 집중 배치하고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정보의 상호교류를 증대하는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과학단지내에서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첨단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보건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첨단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기지로 활용한다.

한편, 산·학·연 공동의 보건산업국가연구자망 및 연구자료 D/B를 구축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보건산업의 업종별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업소를 지정하여 세계·금융상으로 지원하고, 제약업소간 M&A를 촉진하여 기술력 향상과 마케팅력 등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산·학·연 공동연구가 용이한 대학연구실이 연구와 벤처기업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기업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소규모 첨단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절차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창업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4. 전통한방의료의 육성·발전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면역계질환, 골관절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방치료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2010 프로젝트). 부

보건산업의 업종별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업소를 지정하여 세계·금융상으로 지원하고, 제약업소간 M&A를 촉진하여 기술력 향상과 마케팅력 등 경쟁력을 제고한다.

가가치가 높은 한의약산업을 중점 지원하여 2005년까지 5대 분야별 2건씩 10건, 2010년까지 분야별 5건씩 25건의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2005년까지 효능·효과·임상실험단계를 거쳐 2010년까지 20여 개의 한약제제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87억원(정부 1471억원, 민간 616억원)을 투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 한약제제 시장규모(총 491억불)중 현재 우리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2%를 2005년까지 3.5%, 2010년까지 10% 이상을 점유하도록 추진한다.

5. 실버산업의 육성으로 『산업화전략』 강구

실버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자산취득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화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향후 중산층 이상 노인의 경제력 향상, 사회보험 수급 증가 등에 따른 노인주거·재가서비스·보건의료 및 노인복지용구·금융보험·여가활동분야 등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확대는 경제성장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나라 2010년 실버산업의 규모는 37조원(1990년 불변가격)으로 추정되고 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1%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서비스분야의 산업화전략이 논의되었으며, 2000년 실버산업의 규모는 110조엔(민간 최종소비지출의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